

## 방문記

1974년 10월 부터 약 1년간 동경대학교에서 공부할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지만 간호학교와 간호원에 대하여 보고 느낀 것을 적어본다.

동경대학교에는 의학부 보건의학과 내에 간호학 전공분야가 있어 간호학을 배우고자 하면 3학년에서 부터 간호학을 배우게 된다. 대학원 석사과정으로서는 保健學科內에 간호학, 인류생태학, 모자보건학, 정신위생학, 역학, 영양학, 사회보건의학과 등의 2개의 전공을 합쳐 9개의 전공교실로 나뉘어졌다. 학부의 간호학 교과과정은 대개 우리나라와 비슷한 전공과목과 실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질병중심의 강의내용보다는 건강관리, 예방중심의 강의

내용은 40명으로 간호학 전공학생은 10명이내로서 어떤 경우는 1명인 경우도 있다. 이렇게 적은 수의 학생들이므로 교수와 학생은 넓은 교실에 책상을 돌려놓고 둘러앉아 랩프렛을 돌려가며, 강의 자료를 돌려가며 같이 읽어가면서 강의를 듣게 된다. 물론 어떤 교수는 강단에 서서 흑판을 사용하면서 강의하는 경우도 있다. 교수 한 사람만의 결강이 아니라 마주앉아 이야기식으로 주고 받으며 하는 강의는 부러웠다.

또한 간호학교실의 주임교수는 타교실의 주임교수가 대리하며 (이는 의사만이 주임교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간호학교실의 가장 우두머리인 전임강사는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동경대학에서 박사

위한 자료는 무엇이든 가지고 있으며 국내판 간호서적과, 번역서적이 많으므로 누구나 쉽게 구입해 볼 수 있고 외국어의 잡지도 많은 종류의 최근판들이 있어서, 또 얼마든지 연구목적에 위하여는 복사가 가능하므로 손쉽게 볼 수 있어 매우 편리하였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는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행하는 것을 보았다. 퇴근시간이 훨씬 지나 8, 9시경에 퇴근하며 스스로 책을 찾아 실련을 하며 옆에서 묻는 것이 오히려 실례가 될 정도로 자기 일은 자기가 하는 것이었다.

매주 1회와 격주 1회씩 세미나일이 정해져 있어 모든 선생님들과 연구생, 대학원생들이 한 자리에서 순번적으로 혹은 특강으로 미리 나뉘어진 유인물을 읽어와 발표자가 발표한후 함께 논의하는 분위기는 진지하다. 토의시간이 2, 3시간이 지나도 끝날줄 모르고 열심히 하며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원이나, 다른 학교의 선생님들도 몰려 오며 녹음기를 가져와 녹음하기도 한다. 정년퇴직한 원로 선생님도 함께 참여하여 발언을 한다. 내용은 전반적인 간호분야를 모두 다루고 주로 최근의 Nursing Research 등에 실린 연구논문을 가지고 토의를 한다. 이러한 탐구적인 분위기와 태도가 부럽게 느껴졌다.

몇개월간 간호원으로 근무할 기회가 있었다. 사회복지 재단에서 경영하는 침상수 350정도의 병원으로 넘겨지 못한 운영비로 경영하는 교토 간호원의 배수가 다른 병원보다 좋지 못하다고 하나 보통 13~15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으며 「보너스」도 년 2회 200%씩 받고 있으며 신졸업생의 경우가 10만원 정도이고 국립병원의 간호원 보수가 더 좋다고 한다. 봉급으로 생활

## 일본에서 본

## 간호학교와 간호원

### 조 결 자

<경희의대간호학과조교수>

내용이 더 많고 예를들어 내외과간호라기 보다는 성인건강관리로, 소아과간호 보다는 소아건강 이타는, 내용은 다소 비슷하나 보건원에 치우친 강의를 받고 있었다.

전국에 9개 대학과정과 15개 단기대학(2년, 3년과정 포함)이 있다.

대부분 대학과정에서의 입학정원은 20~60명이며, 단기대학은 30~100명으로 대부분의 학교는 40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었다.

동경대학의 경우 보건의학과의 일

학위를 받은 사람이던서도 주임교수가 될 수 없다. 전임강사 1명, 조교(조수라 부름) 4명이 있다. 조수들도 거의 40세가 되거나 넓은 사람들로 경력은 모두 10년이상 되어 있었다.

모든 전공과목에 대한 강의는 대학내의 전문교수와 외부강사에 의해(주로 간호학)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생수가 모두 10명 이내이지만 그의 시설은 부러웠다. 강의준비를

이 충족하므로 「보너스」는 완전히 저급을 한다고 한다. 1일 8시간 3부제 근무를 하며 공휴일은 주로 아르바이트 간호원에 의해 병실이 운영되고 있다. 하나의 특징은 구급병원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야간구급환자는 받지않고 있었던 점이다.

졸업후 2, 3년간 직장생활 하다가 결혼하여 가정생활을 하는 예가 많다고 한다. 내가 일하던 병원은 나이들은 간호원이 많은 것이 특징이었다. 특히 소아병동의 경우는 미숙아실을 포함하여 10명의 정간호원과 준간호원 2명, 간호보조원 2명, 아르바이트 간호원 3, 4명이 일하고 있었으며 정간호원 2명만이 미혼녀 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30~60대 까지로서 환자들을 친자식 처럼 일사안고 귀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정년퇴직이 3년 남은 62세의 할머니 간호원도 젊은이 못지않게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다. 기존 간호원으로서 때만한 배도는 보기 어려웠고 오히려 더 부지런하며 국민성과도 판인이 있었으나 모두가 특별한 감독없이 맡겨진 일과 환자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이들은 간호원들이 많으므로 의사와의 관계는 훨씬 부드러웠다.

소아병동의 특징은 일본의 대개의 경우 신생아를 산모와 함께 있게 하며, 정상신생아는 산부인과 의사의 지시를 받고, 미숙아나 완아만이 소아병동과 미숙아실에 입원되어 소아과 의사의 치료와 소아과 간호원의 간호를 받고 있었음이다. 또한 대부분의 병원에서 기저기 갈아주기와 우유 먹이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일률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으므로 기저기가 젖어서 흉문 주위가 허는 예도 많았고 배가 풀아 손과 주먹을 뻗며 우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안타까웠다. 이는 간호

원의 부족 때문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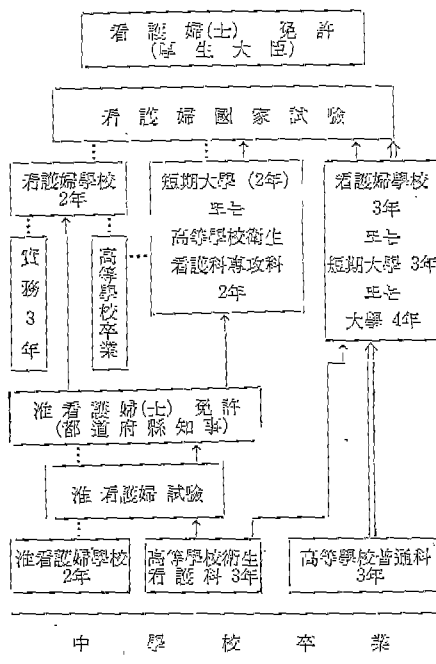
어느 병원에서나 간호원의 수가 부족하여, 「간호부, 조산부 모집」이라고 쓰여진 간판은 쉽게 볼 수 있었다. 부족한 수를 2년제 준간호부 양성소를 졸업한 준간호원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간호원이 되기위하여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가 간호원 양성기관(간호학교, 간호학과 포함)에서 3년 이상 수업하여 간호원 국가시험에 합격해야하고, 준간호원이 되기위하여는 중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가 준간호부 양성소(2년)를 졸업하면가 고등학교 위생간호과(3년)를 졸업하여 준

간호부 시험에 합격한 자라야한다. 남자간호원과 남자준간호원이 있는데 그들은 看護士, 准看護士로 불리며 활동분야는 어선단, 원양함로의 승조(乘組), 「펠」 그의 공사현장 정신병원등의 특수병원과 일반병원의 외과등에서 일하며 그 주요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일본여자들에게서 가장 배우고 싶었던 것은 민첩함과, 친절과, 상냥함이었다. 언제 어디에서나 자세히 안내해주며 인상부터 웃음을 띄우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 해줄 때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환결 가별게, 기분 좋게 해주어 참 고마움을 느끼게 만들어 주었다.

看護婦, 准看護婦가 되기위하여



註: 普通學校에서 2년제 단기대학의 간호과에는 입학할 수 없다.

법례: ⇒高等學校普通科卒業者코스  
→高等學校衛生看護科卒業者코스  
→中學校卒業者코스

保健婦, 助産婦가 되기위하여

